



관내 동향

□ 사천시 항공MRO 정상화를 위한 반격과 재도약

-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안을 1월 27일 발의함
-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9항의 항공기정비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부분으로, 여기에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하여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내용을 삽입
- 사천시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했는데 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MRO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반격
- 하영제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4,229억 원을 투입한 항공MRO 산업 단지 조성과 MRO관련 정부지원사업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사천시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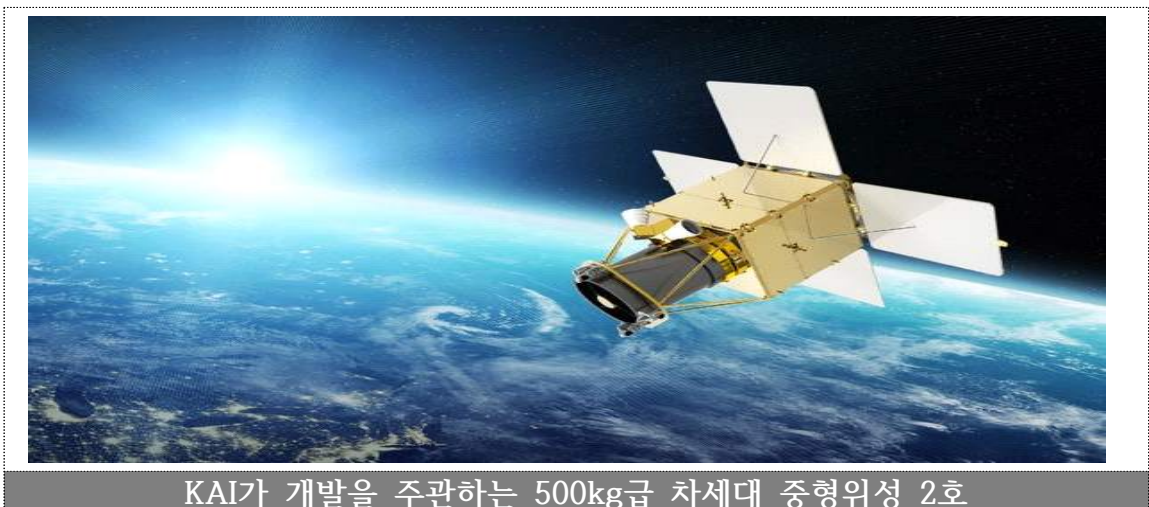
□ 사천시·사천시의회,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

- 사천시는 1월 15일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산업 안정기금 지원조건 완화’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기관에 보냄
- 보잉 737 MAX 운항·생산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위해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건의
- 시는 건의문을 통해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53개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항공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천시의 지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즉시 항공 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사천시의회도 제250 임시회(2021. 2. 2)에서 건의문을 통해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히 지정 해줄 것과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는 항공산업과 항공부품제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 항공부품 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
- 도의회 제382회 본회의에서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수리온 헬기 구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항공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

□ KAI, 뉴 스페이스 TF 출범…우주산업 변화 선제 대응

-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은 2월 3일 사천 본사에서 우주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뉴 스페이스 TF' 출범
- KAI는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우주시장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중심의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목표
- 이를 위해 우주분야 전문기관, 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
- KAI 관계자는 "25년간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했다"며 "KAI 중심의 밸류체인을 완성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힘



KAI가 개발을 주관하는 500kg급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도내 동향

□ **경남도, 중앙부처 등 방문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

- 경남도는 2월 4일 정부에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 도는 이날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중앙정부와 국책은행 등을 방문해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대출금 상환 유예·신용도 완화 등 금융 지원 확대,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
-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등이 추가지원 가능
-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항공제조업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사천시 항공기업을 방문하여 "항공제조업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주요 기간사업"이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항공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힘

□ **경남도의회, 항공산업 현장 KAI 방문**

-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김현철·황재은 도의원은 2월 4일 경남 항공산업육성 및 국산기 운영확대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 경상남도의회는 2020년 11월 국산 수리온 헬기 우선구매를 위해 전남·부산·경북도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도의회에 감사하는 뜻으로 김하용 의장 등 4명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



국내 동향

□ 2020년 국내 항공교통량 전년대비 50% 감소... 하루평균 1,151대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내 항공교통량이 2019년 대비 절반으로 크게 감소
-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한해동안 국내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2019년 대비 50.0% 감소한 42만1천 대(하루 평균 1천 151대) 였다고 설명
- 국내 항공교통량은 2016년 74만대, 2017년 76만대, 2018년 80만대, 2019년 84만대로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감소
- 국내 하늘길 중에서 황금노선인 '서울-제주' 구간도 2020년 16만4천 대가 이용 하였으나, 이는 2019년 대비 47.5% 감소한 수치임
- 국제선의 경우 전년 대비 66.4% 대폭 감소한 20만대(하루 평균 546대) 운항



해외 동향

□ 우주항공 새 이정표 예고, 민간인들로만 우주여행 떠난다

- 민간 우주항공사를 새로 써가는 미국의 기업 스페이스X가 새 이정표를 제시
- 스페이스X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인력이 우주에 투입 되는 임무 '인스퍼레이션4'(Inspiration4)'를 준비하고 있다고 2월 1일 (현지시간) 밝힘
- 우주 탐사가 국가 주도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우주항공 역사에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관측

- 스페이스X는 2020년 5월 30일 NASA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내 민간기업의 첫 우주여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움
- 또한 2020년 11월 16일에는 실제 임무가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내 민간 우주선 정규운항 시대를 개척
- 전문가들은 보잉, 블루 오리진 등 우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우주여행 시대가 서서히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

□ EU · 영국, 보잉 737 맥스 운항금지 해제

-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항공규제 당국이 연쇄 추락사고로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재개를 승인
-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2021년 1월 27일(현지시간)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금지의 해제를 발표
- 영국의 민간항공기구(CAA) 역시 이날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승인
- 보잉 737맥스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발생한 잇단 추락사고로 2019년 3월 운항 정지됐다가 결함 보완작업을 거쳐 2020년 11월 이후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운항 재개를 허락 받았으며 캐나다도 2021년 1월 20일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함.

| | | | |
|-----|----------------|-----|-------------------|
| 작성일 | 2021. 2. 15(월) | 보고일 | 2021. 2. 17.(수) |
| 부서명 |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 담당자 | 오은미(055-831-3470) |